

우리나라는 종교 다원주의 국가다.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장례식장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언가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장례를 앞두고 한 번쯤은 종교에 의지한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일이다. 지인이 상주로 있는 분향소에서는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로 옆 분향소에서는 개신교의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각자 개인이 믿는 종교에 따라 장례문화도 다르다. 각 종교들은 장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장례 문화를 육성하고 장려하고 있다. 장례문화와 포교는 여러모로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에서 불교 상·장례 연불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다른 종교에 비해 조금 늦었지만 바람직한 모습이라 여겨진다. 현대인은 자신이 죽음을 맞거나 혹은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대하게 될 때 종교를 찾는다. 슬픔으로 침잠돼 지쳐있을 때 정성스런 마음으로 의식을 대행해 준다면 상주로서는 큰 위안과 힘을 얻는다. 함께 의식을 치른 상주는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신심이 굳건해지기도 한다.

장례의식과 더불어 장지도 중요한 포교방편이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매장할 선조하는 유교 문화에 대응해 화장 문화와 수목장 및 산골 등 자연장 문화를 이끌어 왔다. 이런 불교전통 장례 문화가 법제화된 것이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중 자연장과 수목장이다. 기존

의 장묘문화는 매장과 납골이 대부분이었다. 이 곳은 산 자의 공간과 분리된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찾기 어렵다. 또한 생활주변에 이런 죽음의 공간이 들어서면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 반면에 수목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산 자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인식돼 자주 찾고 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죽음 또한 자연스런 우리들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된다.

사람은 수목장에 필요한 산림과 휴게소, 식당 등이 이상적으로 구축돼 있다. 사찰 주위 산림은 우리의 큰 자연유산이다. 사찰 경내를 비롯한 사찰 주위 산림이 풍성한 것은 스님들이 도감이라는 직책을 뒤받았을 기리지 않고 지켜왔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이런 유산으로 바른 장묘문화를 선도해 포교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사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불교에서는 은혜사, 전등사, 기림사에서 수목장을 실시해 왔다. 필자는 전등사 기획팀장으로 수목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수목장이 포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전등사의 수목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종교 성향은 대체로 세 가지다. 가족 모두가 독실한 불교신자로 고인을 절 부근에 모시고 싶어 하는 경우, 고인은 독실한 불자이고 자녀들은 무교인 경우, 가족 모두가 무교인 경우다.

첫째의 경우는 이미 재직사찰이 있으므로 논의로 하더라도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이들은 발인을 하고 화장장을 둘러 전등사에 오면 유골

을 명부전으로 모셔 반환제를 한다. 스님의 집전으로 영복에 안치하는 장례의식의 내용에 대부분의 유족들이 만족감을 느낀다. 또한 스님들의 정성과 여법한 의식에 스님과 불교에 대한 호의를 갖게 된다. 그리고 제사 등 고인을 위한 추모 행위를 하며 자주 전등사를 방문한다. 이런 방문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 궁금증은 스님들과의 면담으로 해결되고 신도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개정된 장사법에서는 종교단체는 해당 신도들에게만 수목장 제공이 가능하다. 해당 신도들에게 국한된 법률상, 포교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장지를 찾은 이들이 불교 장례문화의 여법한 의식에 감복한다면 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교로 귀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수목장은 포교에 있어 여전히 가능성이 큰 방편이다. 현재 개별사찰마다 다른 명패, 관리법, 장례의식을 종단 차원에서 통합·개발해 매뉴얼을 갖춰 수목장을 진행한다던 대중에게 신뢰를 주고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다만 개정 장사법은 문화재사찰대부분의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와 수목장 면적 5000㎡로 제한했다.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통사찰은 문광부에 등록돼 있어 법인에 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목장을 기존 장사법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문화재청장의 허가 득과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은 포교에 방해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종단 차원 대책과 대응을 모색해 전통사찰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자의 눈

마곡사 방생법회를 배우자

조계종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가 최근 뜻 깊은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5월 27일 공주 금강 둔지에서 봉행한 방생법회에서는 토종붕어 35만 마를 방류했다. 생태계 교란의 우려를 이유로 방생법회는 사실상 금지시 되어왔지만, 이날 방생법회는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이날 법회가 마곡사의 독자적인 행사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인 공주시의 지원을 받은 행사였다는 점이다. 마곡사는 이날 방생 법회를 위해 공주시로부터 토종 붕어의 치어 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비도 지원 받았다. 지자체가 생태계 복원 사업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에 치어를 구입해 주고 방류를 위한 행사도 지원한다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다. 사찰이 지자체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인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방생법회의 또 다른 의미는 생태보존과 불교계의 신행 의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범포화란 방생법회도 얼마든지 좋은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방생에는 짐승이나 어족의 방생 뿐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다른 나라의 재앙에 구호품을 보내는 일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마곡사의 방생법회는 지자체와 사찰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여법한 불교 의식이 봉행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태 복원의 목적 사업도 이루어진 좋은 예다. 방생의 정신을 구현하는 좋은 사례로 다른 지역의 사찰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담사지 보존은 당연한 결정

서울 강북지역에 신설되는 뉴타운 지역 가운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은평뉴타운 개발 공사장에서 발견된 절터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소식이다.

뉴타운 개발지구는 막대한 개발 자금과 부동산 시세에 적지 않은 기대를 안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사의 지연이나 중지 등은 매우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게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발견된 절터를 보존하기로 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이 절터를 신라 10대 화엄 사찰 중의 하나인 청담사(淸潭寺)터로 추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절터를 보존하는데 있어 이해 당사자와 개발 주체의 반발이 없지는 않겠지만,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송에 대한 국가적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만 큼이나 새로운 유산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 또는 보존 하는 일도 중요하다. 문화유산은 과거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에도 활발하게 숨 쉬며 선인들의 지혜를 전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비록 막대한 경제적 이해가 얽힌 뉴타운 개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귀중한 문화유산이 발굴 되었다면 그곳을 보존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대화를 나누는 현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불자 세상보기

박 석 암

전등사 기획팀장

수목장과 포교전략

학생들에게 시험은 가장 부담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시험에 대한 마음의 인력을 바꿈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자세로 시험을 치르는 경험들을 하였다. 특히 마음의 힘을 키우는 참선의 힘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몇 사람의 체험을 나누어본다.

“참선의 힘으로 마음 키워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⑥ 달라진 마음, 달라진 시험

곯했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어 힘들게 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는 인력을 다르게 해 보았다. “행복한 시험, 감사한 시험”이라고 마음에 인력을 했다. 여전히 밤을 새워야 했지만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았다. 다시 몸이 힘들어지고 하기 싫을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험”이라고 했더니 피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시험 볼 때는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피하려던 시험을 행복하다고 하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으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매일 마음 집중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의 물결이 전보다는 훨씬 잔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결과에 많은 미련이 남고 계속 틀린 문제가 떠올라 다음 시험에 지장이 많았다. 이제는 시험이 끝나면 빠르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나간 시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다음 시험에만 집중해서 내 힘과 에너지 사용한다. 이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나 에겐 신기하고 신나는 일이다.

#불안이 사라져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참선을 하였다. 불과 하루 전까지도 시험만 생각하면 불안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시험 보는 동안 공부한 내용이 생각 안 나서 순간 걱정했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자 기억이 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런 일이 있어도 시험에 잘 집중하고 있는 자신이 딴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음 집중 훈련이 이번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잘 할 수 있다: 4학년이라 매달 영어 토익시험을 보고 있다. 취업하기 위해 만족한 점수가 나올 때까지 봐야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이번에도 못 보면 어쩌나 하는 부정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은 매일 세 번 이상 마음에 긍정적 인력을 해 보았다. “잘 할 수 있다”라고 매일 하게 되면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자신감이 생기자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꽤 잘 본 것 같다. 마음의 인력이 출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다.

#감사한 시험: 그 전에는 시험기간이면 늘 민감해져서 누나 주변사람들에게 짜증을 부리곤 했었다. 그런데 수업을 통해서 정말 대학에 다니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생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이전 내가 수업을 듣고 시험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무척이나 고맙게 느껴지며 불평을 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대학에 오고 싶어도 못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에게 큰 변화를 준 수업을 듣게 된 것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음의 법칙은 자연의 원리이자 과학이다. 이것은 실제로 적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인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 부정적인 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한번 바꾸어 보세요.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내가 달라졌어요

#긴장에서 편안함으로: 나는 원래 시험 때마다 긴장하는 사람이었다. 시험당일에는 항상 긴장해서 화장실을 몇 번씩 들락날락거려야한다. 시험을 보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끝없이 허둥지둥하며 다음 문제들에도 영향을 미치곤 하였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달랐다. 매일 3분 참선 훈련을 한 달간 한 후였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 시험 직전에도 참선을 해서 마음을 집중하였다. 역시 어려운 문제가 나왔지만 당황하려는 마음을 다시 가라앉혀며 차분하게 유지해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시험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나에게 결과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힘을 진실로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달라졌다.

#시험이 행복하다: 항상 시험기간에는 피곤하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라는 식의 마음의 인력을 계속 해 왔던 것 같다. 그것도 생각해 보기 전에는 몰랐었다. 그러다보니 공부를 미루기만 했다. 벼락치기로 시험 전날 밤을 새고 시험을 보

태아영가 천도재 안내

태아영가는 엄마, 아버지의 업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태아영가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 낙태된 태아영가에게 참회기도와 함께 다음생에 밝은 빛을 보게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세요.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생각을 미루지 마세요. 태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 하루속히 저를 어둠속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지금도 태아영가는 슬프게 말합니다. 기도해달라고...

- 망태아도 생명이다.
-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다, 그 업으로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얻게 된다.
- 엄마, 아빠는 그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음생에 좋은 인연으로 맺어주시기를 발원합니다.

기도안내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입재일 : 양력 6월 1일 - 일요일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회향일 : 양력 7월 20일 - 일요일

기도는 입재 / 3재 기도 / 5재 기도 : 관옥 / 7재 기도 : 회향

준비물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 (5재 관옥에 필요한 태아 비누, 수건, 양말, 옷, 신발 등)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801-04-021932 (구담사) / 농협 225051-51-113712 (구담사)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5 / TEL : (031)533-2855, 2584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 를 쓰세요. http://gudamsa.org



구담사 찾아오는길

- 1호차 : 조계사 앞(7:00) → 한성대입구역(번 출구(7:10)) → 김유역 10번 출구 (7:10) → 미아삼거리역(번 출구(7:20)) → 수유역(1번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일동시내 → 구담사
- 2호차 : [지하철 7호선] 태릉역(5번 출구(7:20)) → 노원역(3번 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의정부터미널 앞(8:20) → 일동시내 → 구담사
- 3호차 : [지하철 3호선, 7호선]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출구 신세계백화점 앞(7:20) → 강남역 테코노마트앞(8:00) → 일동시내 → 구담사
- 4호차 : [지하철2호선]강변역 테코노마트앞(8:00) → 광나루역3번출구 버스정거장(8:05) → 구리역(1번출구(8:20)) → 구담사
- 5호차 : [지하철, 2호선]신도림역 1번출구 육교근로 푸르지오앞(06:30) → [1호선]구로역 구로사거리 열린웨딩부페앞(06:35) → [5호선]목동역 1번출구 좌측(06:45) → [3호선]일산 백석역 7번출구(07:15) → 원당역 6번출구(07:30) → 의정부터미널(08:10) → 일동시내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